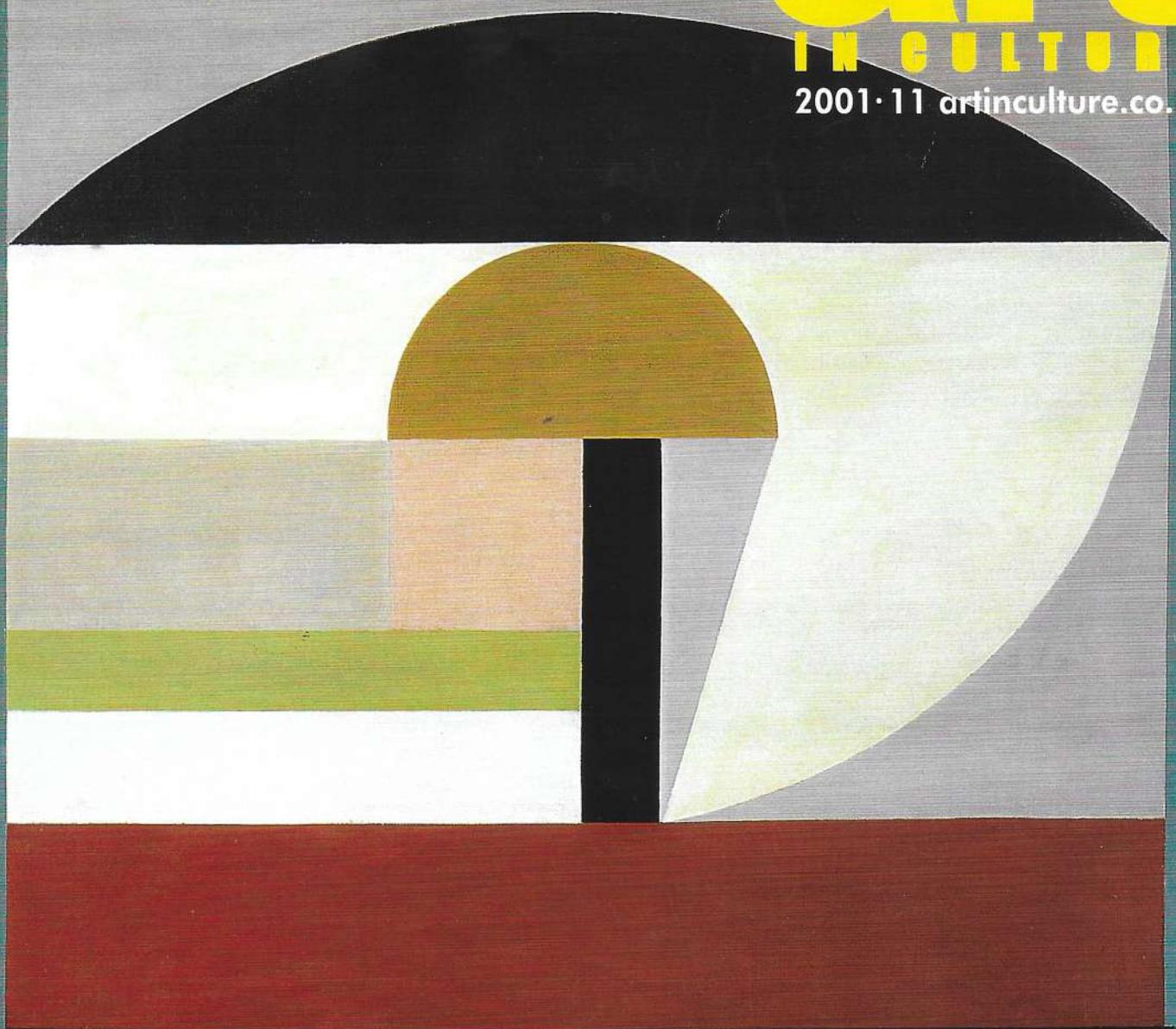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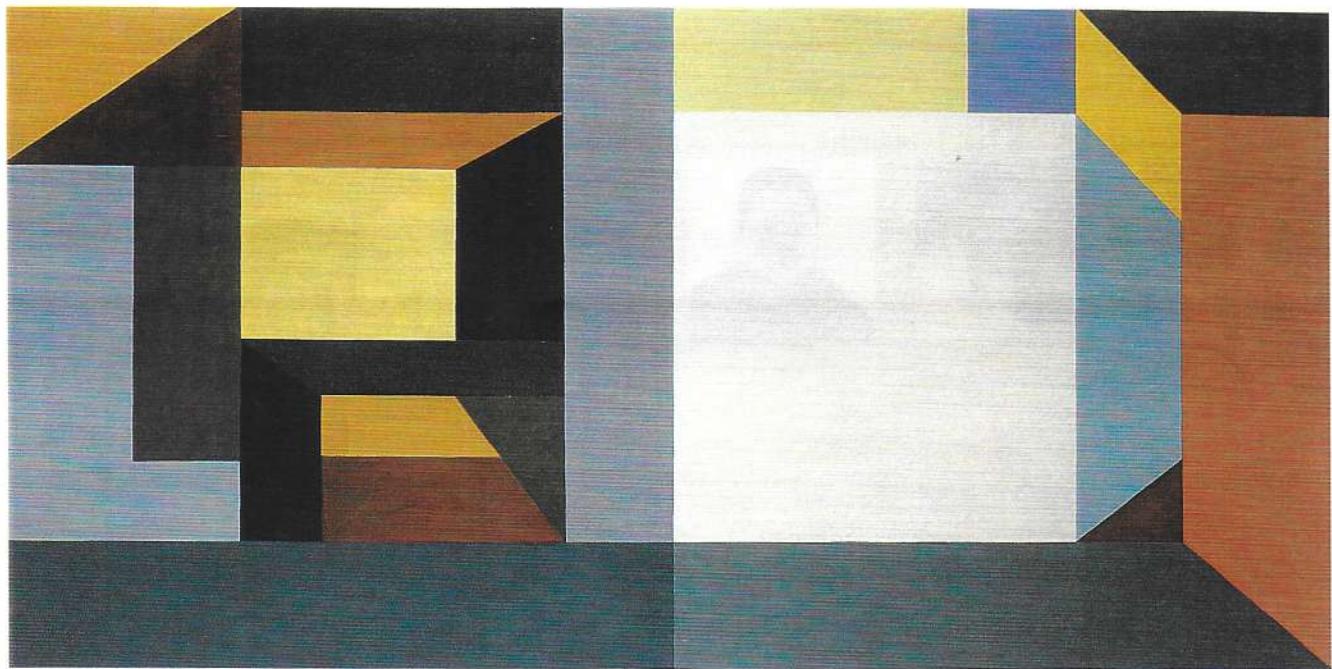
art
IN CULTURE
2001·11 artinculture.co.kr



my life, my work Eun-Mo Chung

SURREALISM: DESIRE UNBOUND

Kim Kyung Ah - editor



이탈리아에 온 후부터 내 작업은 건축에서 영감의 원천을 얻고 있다. 르네상스와 고전주의 유산은 바로 내 곁에 있다. 이탈리아의 고대 벽화에서 큰 미적 감동을 받았다. 폼페이 벽화는 벽의 물리적인 특성을 승화시켜 건축의 독특한 관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벽의 물리적인 실제 성격을 중화하기 위해 석재 벽돌을 대신하여 평면적인 구성요소가 기둥이나 배내기와 같은 건축적인 부속품과 결합을 이룬다. 내 작품의 형태는 벽을 모태로 한다. 내 작품의 표면·색채 역시 벽을 직접 사용하는 전통과 관련이 있다. 월리엄 짐머는 내 작품 색채를 '대지의 색채, 역사와 고고학의 색채'라고 말했다. 자유자재로 변형시킨 캔버스의 색채 화면들은 널따란 전시장 벽면을 하나의 캔버스 삼아 재구성하는 재미도 있다. 벽 속의 벽 그림이라고나 할까? 지난 4월의 서울 나들이, 나는 처음으로 고국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내 작품은 그 동안 한국에 소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개인전 전시장에서 내 작품을 본 관객들은 안마당과 격자 창, 베개보, 보자기보, 아니면 단청 같은 형태와 색채를 떠올렸다. 얼마나 반가웠던지… 본질적으로 평면적인 한국 건축의 특성이 독특한 공간 유형에 대한 나의 성향과 틀림없이 관계 있다. 어린 시절 한국에서 보았던, 그리고 그 이후에 내 마음속에 잔잔히 가리앉아 있는 한국 전통의 질서와 균형, 즉 반투명의 미단이 문, 접혀진 병풍, 서로 겹쳐진 기와는 모두 내 작품에 용해되어 있다. 서툴어진 말, 다 잊은 예절들로 아주 어색한 사람이 되어 버렸지만 여러 사람들의 따뜻한 인정으로 잊지 못할 서울맛을 찾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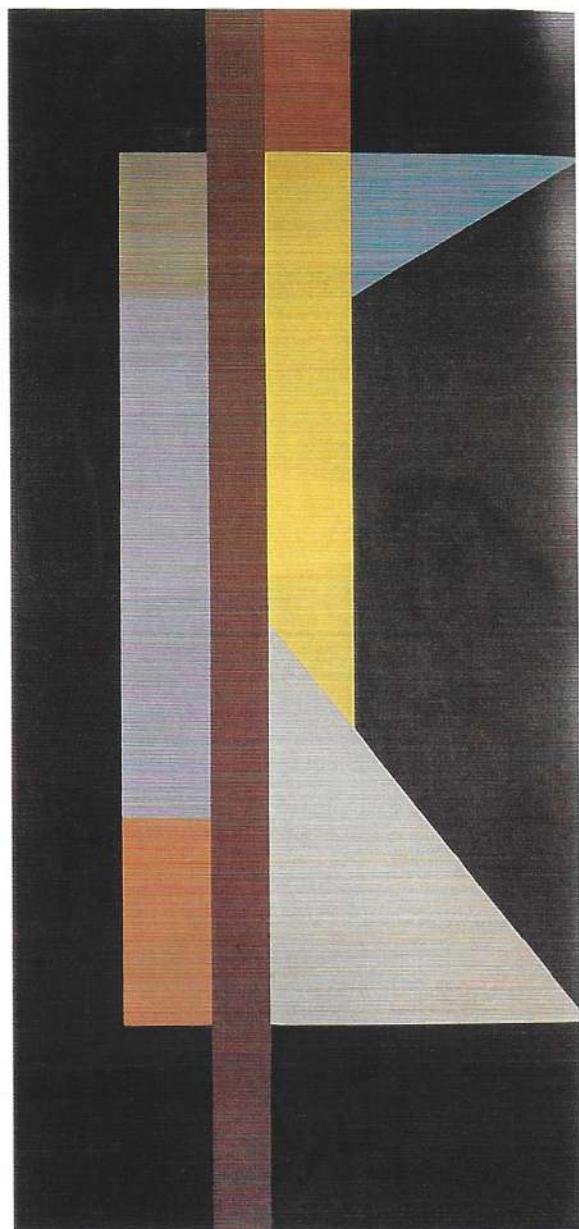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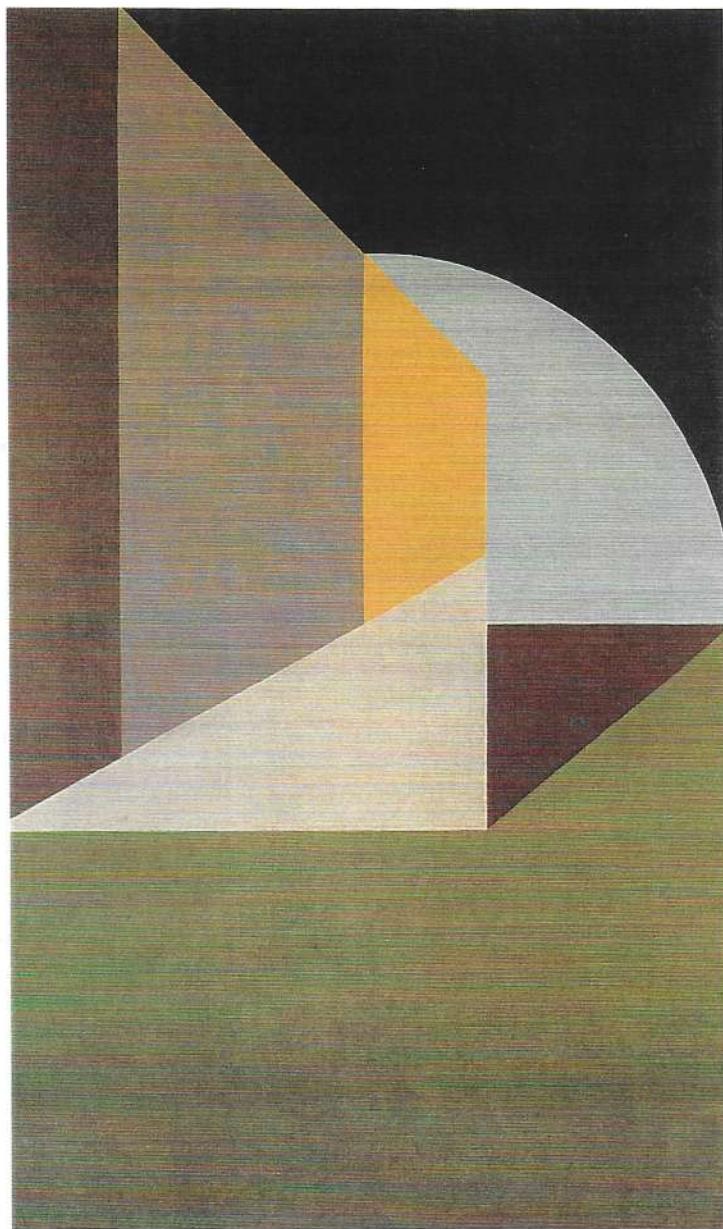
위: '내부와 외부' 캔버스에 유채 100×200cm 1994

November 2001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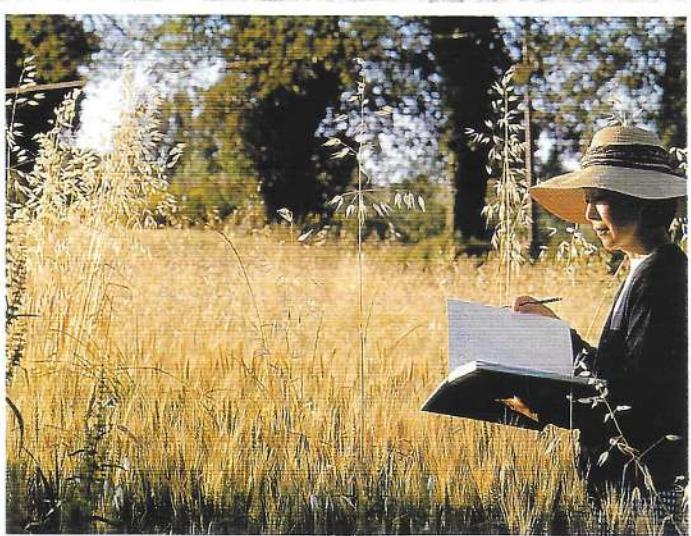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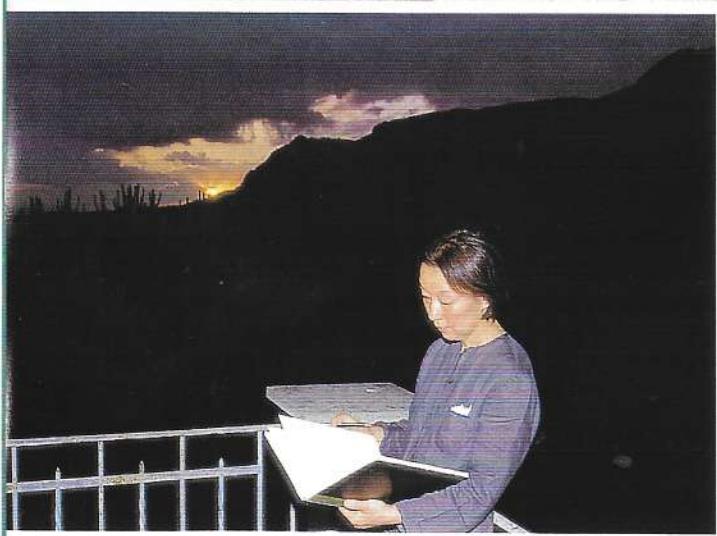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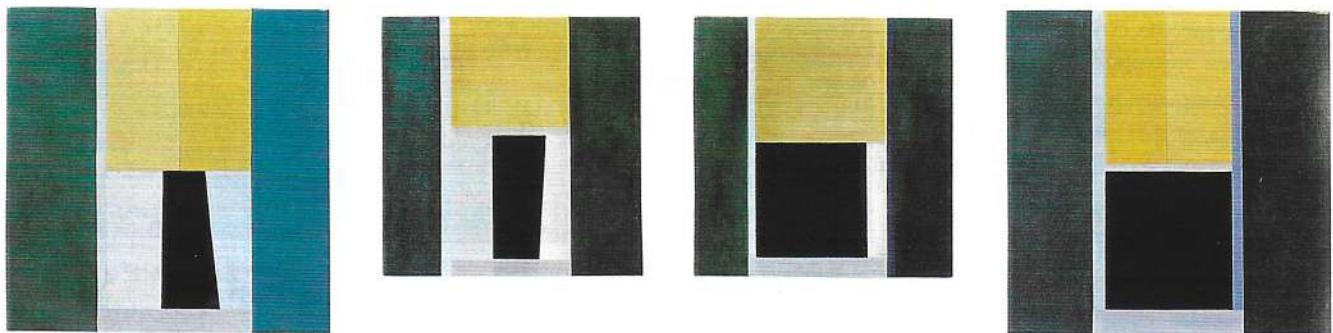
왼쪽 : 〈라이트 베타〉 캔버스에 유채 200×120cm 1997 오른쪽 : 〈좁은 통로〉 캔버스에 유채 170×80cm 1994

정은모는 1946년 서울에서 태어나 이화여고 3학년생이던 64년 도미, 로제스터 인스티튜트 오브 대크놀라지와 프랫 인스티튜트에서 수학했다. 40을 넘긴 87년부터는 이탈리아에서 생활하기 시작해 현재 로마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인 네로니에서 혼자 살고 있다. 규육·로마·볼로냐·민헨·디클린·서울 등지에서 20여 회의 개인전을 가졌고, 아이리시 근대미술관·리메리 시립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올해 풋복 크레이스니 개인상을 수상했다.



my life, my work EUN-MO CHUNG

정 은 모



이탈리아, 내가 일하며 사는 곳

지중해 맑은 하늘 아래서 역사의 자취를 느끼며 나는 그림을 만들며 지낸다. 이곳에 온 지 벌써 10년. 정도 들었고 생활도 익숙해졌지만. 보는 눈과 느끼는 감은 이방인이다. 어찌면 나는 이곳 일상에서 얻은 영감, 그리고 빛바랜 어린 시절 고향의 아스라한 추억을 동시에 화폭에 옮기고 있는지 모른다. 서양생활을 몇십 년 했지만 잊지 않고 있는 것은 옛집 환경이며 어릴 때 받았던 교육이다. 오래된 나라에서 자란 사람이라 그런지 전통 있는 문화적 분위기가 좋았고, 특히 유화를 하니 그것을 근본적으로 배우며 일하고 싶어 이탈리아로 오게 되었다.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 이화여고 3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곳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그림을 시작했다. 미니멀 아트와 그 공론이 기세를 떨치던 시절이다. 그 속에서 만난 현대미술사를 수놓은 술한 이즈과 화가들… 그러나 내 관심은 항상 그림(유화)으로, 절대주의 화가 말레비치, 이번 클리운(Ivan Kliun)이 더욱 중요했다. 형태의 명료성, 공간의 통제… 내 작업은 몬드리안과 말레비치로 이어지는 모더니즘 회화의 유산을 이어받게 되었다. 표면적으로는 분명 그렇다. 색채의 평면 분할, 우아한 색조의 균형, 그리고 형태와 색채의 절대적 만남… 나는 모더니즘이 빛진 바가 많다. 그러나 동시에 일체의 여분 없이 표현하는 애드워드 호퍼와 조르지오 데 카리코도 늘 나의 극찬 대상이었다.

글 | 정은모 · 사진 | 이인선

위 <질문> 캔버스에 유채 50×225cm 2000

